

신이식환자에서 진균, 폐포자충 및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합병된 폐렴의 성공적 치료 1예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태영 · 신정호 · 남우진 · 김선민 · 이경은 · 김수현 · 오동진 · 유석희

A Successfully Treated Case of Pneumonia Caused by Fungus, Pneumocystis jirovecii and Cytomegalovirus coinfection

Tea-Young Kim, Jung-Ho Shin, Woo-Jin Nam, Sun-Min Kim
Kyung-Eun Lee, Su-Hyun Kim, Dong-Jin Oh, Suk-Hee Yu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법으로써 신장이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립 장기 이식관리 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는 연평균 800에 이상이 시행되어 2007년에는 996건의 신장이식이 이루어졌다.

이식 기술 및 이식 후 환자 관리 발달, 예방적 항생제와 치료제의 발달 및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억제제의 발전에 의해서 이식신 생존률과 환자의 생존률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이식후 감염은 장기 이식 환자에게 중요한 합병증으로 남아 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장기이식이나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에서 잠복감염 상태로 존재하다가 감염을 일으키는데 거대세포바이러스의 면역저하때문에 Pneumocystis jirovecii, 그람 음성균, 진균의 중복감염을 일으킬수 있으며, 신장이식후 54-70%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2년 전 신이식후 면역억제 치료를 하던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행한 개흉 폐생검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Pneumocystis jirovecii, 진균의 동반감염에 의한 폐렴을 진단하였다. 신장이식 후 조직학적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Pneumocystis jirovecii, 진균의 감염이 동시에 발생한 예가 드물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 신이식, 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

Kidney transplantation, Pneumonia, CMV